

위대한 김일성 -

로동신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일주의 만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김정은동지 만세!

제1105호 [루게 제24518호] 주제103(2014)년 4월 15일 (화요일)

사설

위대한 김일성 동지의 혁명사상은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다

우리 조국은 세기와 세대를 이어 백두의 기상과 당력으로 승리만을 떨쳐나가는 백두산대국이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진군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 있는 시기에 우리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이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새 기원이 열리고 그 운명개척의 앞길에 광휘로운 서광이 밝아온 대통령의 날이다.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모심으로 하여 조선혁명의 승리의 진로가 마련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수행의 새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으며 세계지도에서 빛을 잃었던 우리 조국이 불패의 사회주의 강국으로 솟구쳐오르게 되었다. 미증유의 사변으로 20세기를 격동시킨 현대조선의 력사,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강성변영과 주체혁명위업의 창창한 미래는 4월 15일과 하나로 잇닿아있다.

크나큰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뜻깊은 태양절을 경축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은 지금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존엄과 승리, 번영을 위한 만년기틀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고마움과 끝없는 경모의 정에 휩싸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하여 우리 조국과 민족, 시대와 력사앞에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신 혁명의 대성인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은 민족과 전세계가 우리 리받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영광이고 자랑이며 후손만대의 행복이다.»**

지도사상은 국가의 존엄과 운명, 발전의 기초이다. 위대한 사상을 가진 인민만이 위대한 력사와 전승을 창조하며 백두의 위력과 강성변영의 기상을 떨칠수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의 길에 나서신 10대에 벌써 시대와 력사발전의 요구, 민족의 장래를 깊이 통찰하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었다. 이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위업, 사회주의위업승리의 참다운 진로를 명시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가장 훌륭한 과학적도태우에 올려놓은 특출한 업적으로 된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민족수난의 암담한 시기에 주체의 해방을 높이 추켜들시으로써 조선의 혁명가들은 칠푼들부터 자기의 확고한 지도사상을 가지고 존엄한 혁명의 행로우에 영웅적투쟁전투와 불멸의 위훈을 수놓아올수 있었다.

우리 혁명은 튼튼없이 견고하고 복잡다단한 길을 헤쳐왔다. 기성관념, 기성방식으로써는 도저히 수행할수 없는 여러 단계의 혁명과업들과 수많은 사회정치적변혁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었다. 혁명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훌륭한 사상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선견지명있는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년대와 년대를 이어 백적불굴의 혁명정신과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하며 두차례의 혁명전쟁과 두단계의 사회혁명, 장기간의 사회주의건설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 사소한 편향 없이 청승날고계신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조국을 인민의 품과 리상이 실현되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전변시킨 인민대중중심의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한평생은 이인위천을 좌우명으로 삼고 그것을 사상과 령도에 구현하여 현실로 꽃피우신 인민적수령의 혁명생애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인민들속에 들어가는것으로부터 혁명활동을 시작하시였으며 수령님의 혁명생애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실현하는대 광그리 바쳐졌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인민



대중의 자주적요구와 지향이 곧 사상리론으로, 로선과 정책으로 되었으며 인민대중에게 쉽게 리해되고 그들이 나아가갈 운명개척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침이 마련되게 되었다. 당건설과 군건설, 국가건설에 관한 문제로부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들은 그 어느 것이나 다 인민중심, 인민중심으로 일관되어있다. 혁명활동의 전기간 인민대중을 위한 것임을 철저히 구현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는 우리 조국이 자주적인간의 존엄과 지위가 확고히 보장되고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활짝 꽃피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전변되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오늘 이 땅우에 일떠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이라는 대지우에 씨앗을 뿌리고 한평생 가꾸어 마련하신것이다.

근로하는 인민을 한몸에 안아 그들의 존엄과 운명을 끝까지 지켜주고 빛내여나가는 여기에 백두산대국의 참다운 면모가 있다. 위대한 혁명사상의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조국은 앞으로도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신뢰속에 인민의 모든 꿈을 실현해나가는 인민의 나라로 존엄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조국을 자기가 선택한 길을 따라 뜻없이 나아가는 불패의 강경보루로 일떠세운 자주

의 혁명학설이다. 자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한평생 견고히 구현해오신 혁명신조였고 혁명방식이었고 혁명정신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 시기에 벌써 비범한 예지와 통찰력으로 자주성은 인민대중의 생명,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그것을 실현하자면 시대와 교조를 배격하고 혁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혁명의 진리를 밝히시었다. 선행한 리론이나 다른 나라들의 경험에 구애되지 않고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빛나게 수행하시였으며 대국주의자들의 압력과 전횡, 미제의 횡포한 도전을 짓부시고 주체적혁명로선을 확고히 고수하신 어버이수령님의 견결한 자주정신, 자주의 원칙은 오늘도 세상이사람들을 경탄시키고있다.

오늘 자주로 존엄높고 선군으로 윗력 떨치며 사회주의의 한길을 따라 승승장구하는 백두산대국의 장엄한 기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무궁무진한 생명력의 힘있는 분출이다. 미래에 쉽게 리해되고 그들이 나아가갈 운명개척의 참다운 길을 밝혀주는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침이 마련되게 되었다. 당건설과 군건설, 국가건설에 관한 문제로부터 사회주의혁명과 사회주의건설에 관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들은 그 어느 것이나 다 인민중심, 인민중심으로 일관되어있다. 혁명활동의 전기간 인민대중을 위한 것임을 철저히 구현해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상리론활동과 정력적인 령도는 우리 조국이 자주적인간의 존엄과 지위가 확고히 보장되고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활짝 꽃피는 진정한 인민의 나라로 전변되게 한 근본원천이였다. 오늘 이 땅우에 일떠선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어버이수령님께서 인민이라는 대지우에 씨앗을 뿌리고 한평생 가꾸어 마련하신것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우리 조국을 거창한 창조와 세계적변혁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토록 시킨 만능의 보검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사회주의건설로선과 정책들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었다. 혁명의 주체적령향을 튼튼히 꾸림에 대한 로선과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비롯하여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백과사전적인 사상리론들이 있었기에 우리 조국은 혁명의 년대기마다 **«영웅조선», «천리마의 나라», «주체조선»**으로 위용떨칠수 있었다.

지금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해주신 로선들과 정책들이 조국과 민족의 강성변영을 위한 투쟁에서 얼마나 귀중한 재부로 되는가를 심장으로 절감하고있다. 세계적인 경제파동과 제국주의자들의 끈질긴 괴롭살책동속에서도 항일투사들이 백두의 설한봉속에서 그러모든 리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우리 조국의 경이적인 현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총대중심, 군사중심사상과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비롯한 혁명적인 사상과 로선들을 빛나게 구현해오신것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유산을 물려주신 사상리론적재부를 여세게 물려주고나아가는 백두산대국의 앞길은 끝없이 휘황찬란하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절대적 진리성과 변혁적위력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세기를 이어 더욱 힘있게 파시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력적인 사상리론 활동으로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동지로 정식화하시고 그 보물고를 발전공부하시였으며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 화를 우리 당의 최고공명으로 선포하시어

주체혁명위업수행의 획기적전환의 대검표를 마련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총대중심사상을 선군혁명사상, 선군정치로선으로 심화발전시키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로선을 제시하시어 김일성주의의 견인력과 생활력을 비상히 높이고 혁명실천에서 그 정당성을 힘있게 확증하신것은 거대한 력사적공적으로 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김일성주의를 자주 시대의 유일한 지도사상, 지도적지침으로 빛내이고 백두산대국의 강성변영을 위한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영원토록 깊이 전해갈것이다.

오늘 김일성-김정일주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현시대와 인류의 미래를 대표하는 위대한 지도사상으로 더욱 빛을 뿌리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으로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계승완성하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전군건설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시어 대원수님들의 결연한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길로 끝까지 나아가시기를 우리 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내세우신데는 이러한 신념과 의지가 맥박치고있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의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참된 자유와 행복을 지향하는 인민들의 빛으로,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당과 혁명의 진두에 모시고 전진하여온 력사적투쟁속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높이 들고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갈 결심과 의지를 더욱 굳히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기치높이 나아가는 백두의 혈통으로 당과 혁명의 명맥을 줄기 차게 이어나갈수 있는 근본담보가 있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체득한 철리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여야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천백배로 다지며 백두의 행군길을 따라 변함없이, 드림없이 나아갈수 있다. 동서고금에 있어본적이 없는 수령영생위업 실현의 승고한 세계를 펼쳐오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의 위대성을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과 뜻을 같이한다는 것은 곧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철저히 구현해나간다는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삶과 투쟁의 좌우명으로 삼고 세대와 세대를 이어 백두의 혈통을 영원히 이어나갈것이다.

김일성-김정일주의의기치높이 나아가는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승리, 강성변영이 있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 절감한 진리이다.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전군건설에서 우리 각은 시련과 난관은 헤아릴수 없었지만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기치가 높이 일날렸기에 우리는 치열한 반제대결전과 거창한 강성국가건설에서 경이적인 승리를 이룩할수 있었다. 김일성-김정일주의에 대한 신념과 애정을 순경으로, 불가능을 가능성으로 전변시키는 만능의 지침이 제시 되어있으며 거창한 혁명실천의 귀중한 경험과 시대적본보기가 다 담겨져있다. 그러면 고난과 시련이 겹쌓이고 한지풍파가 닥쳐온다고 해도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우리의 앞길을 밝혀주기에 천만군민의 배심은 든든하며 미래는 락관적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위업, 유훈을 빛나게 실현하여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력을 천백배로 높이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투쟁목표는 비상히 높고 난관도 있지만 최후승리를 위대한 사상의 힘으로 전진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을 백전백승의 기치로 높이 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선군조선의 새로운 변영기를 힘차게 열어나아가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 절대적진리를 높이 들고 발양시켜나아가야 한다.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확고한 신조로,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자신들의 배와 살로 만들어야 한다. 전당적으로

영광으로 간직하고 원수님의 사상과 로선을 가장 철저히, 가장 완벽하게 실현해나 가야 한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적으로 사수하자!>는 신령의 위호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그 구현인 당의 로선과 정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한치의 드림도, 한 걸음의 양보도 없이 결사판철하여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 령도체계를 철저히 확립하여야 한다. 전체 인민이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오직 경애하는 원수님과 사상과 뜻, 승리를 같이해나가는 참된 혁명동지,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부강조국건설원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이 땅에 태를 묻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야 한다. 모든 부문, 모든 단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투쟁을 늘 따져보고 철저히 판철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실천으로 빛내여나가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어버이수령님의 부강조국건설구상과 념원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드세차게, 더욱 과감히 벌려나감으로써 오늘 의 총진군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나가야 한다.

조국통일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간곡한 유언이며 민족최대의 과업이다. 우리는 조국통일3대헌장파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적들의 대조선적 대시정책과 반통일책동을 단호히 짓부셔 버려야 한다.

우리 당의 대외정책적립자인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세계자주화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을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우리 인민의 앞길을 활히 밝혀주셨으며 당의 현명한 령도가 주체혁명의 승리를 굳건히 담보해주셨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백두의 행군길을 줄기차게 이어나갈 것이며 주체의 사회주의강성국가의 명마루에 반드시 어버이수령님의 한생이 어린 붉은기를 휘날리고야말것이다.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필승의 신심드림이 백두산대국의 찬란한 미래를 위하여 언제나 싸워나가지자.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총서인 불후의 로작들과 당원들을 활히 제들도록 하기 위한 학습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혁명사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며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이 안고있는 진리의 힘을 남김없이 발양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주체의 최고성지인 금수산태양궁전을 목적으로 사수하며 수령영생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데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정을 바쳐야 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기치높이 혁명과 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제일무기로 틀어쥐고 김일성-김정일주의의기치높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억세게 나아가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를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일색화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사상공세를 드세차게 벌려야 한다. 모든 사상일군들은 함일유격대나팔수가 되어 당사상사업을 공세적으로 벌림으로써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의 화를 위한 우리 혁명의 진군속도를 비상히 높여나가는데서 사상전진의 기수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로선을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사상도 령도도 품도도 백두산위인들 그대로이신 회세의 천출위인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로선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하기 위한 결정적담보가 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백두의 대업을 이룩해나가는 것을 더없는 자랑으로, 최대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태양절에 즈음하여 4월 15일 0시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으시였다.

최룡해동지, 리영길동지, 장정남동지, 김원홍동지, 최부일동지, 변인선동지, 서홍찬동지, 박영식동지, 김동화동지를 비롯한 무력기관의 책임일군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공화국의 최고수위에 변함없이 높이 모신 크나큰 영광이 하늘땅에 차넘치는 속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2돐을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뜻깊게 맞이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를 돌이켜보는 천만군민의 가슴은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조국과 인민, 시대와 역사앞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시어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수령, 전설적위인으로 만민의 칭송을 받고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뜨겁게 설레이고있다.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며 주체의



최고성지인 금수산태양궁전은 숨뀀 군명에 위병대가 정렬해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의 립상을 우러러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명에 위병대 대장이 영접보고를 드리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립상향례는 당기와 공화국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

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출애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훈장보존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서 생전의 모습으로 계시는 영생출애 들어서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면서 삼가 인사를 드리시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백두밀림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끝까지 완성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짐하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2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2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14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대회장인 평양체육관은 주체혁명의 영광스러운 시원을 열어주시고 자주시대의 승리적전진과 민족번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주체의 태양이시며 우리 당과 혁명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정으로 세계게 설레이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이 휘날리는

붉은 기록에 모셔져있다. 《조선혁명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상징하는 혁명의 생산 백두산모형과 《탄생 102돐》이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자!》,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전당과 온 사회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유일적령도 체계를 더욱 철저히 세우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김일성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 리영길동지, 장정남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박도춘동지, 양형섭동지, 리용무동지, 강석주동지, 김원홍동지, 김평해동지, 박범기동지, 최부일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당,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영웅들, 점령자들, 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모범적인 일군들, 로력혁신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리기석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고문, 윤길상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장, 김철성 국제고려인통일연합회 제1부위원장님이 주석단에 자리를 잡았다. 대회에는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 내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혁명렬사유가족들, 공로자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태양절경축 제일본조선인대표단을 비롯한 해외동포대표단들과 동포들, 반체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가 대회에 참가하였다.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국제기구대표들, 무관들, 외국순방들이 대회에 초대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김기남동지가 개회사를 하였다. 《김일성장군의 노래》주악으로 대회가 시작되였다. 대회에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사명과 의무를 다해갈 전체 참가자들의 드높은 열의가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대회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세계자주화위업》에 관한 주체사상토론회 진행

태양절에 즈음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세계자주화위업》에 관한 주체사상토론회가 14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토론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등 구호들이 토론회장에 나붙어있었다.

토론회에는 오가미 쟁이씨 주체사상연구사상연구소 사무국장을 비롯한 주체사상연구조직대표단들과 대표들, 주체사상신봉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사회과학자협회 위원장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리길성, 지승철 조선사회과학자협회 부위원장들, 관계부서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참가자들은 주체사상을 연구 보급하는 길에 한생을 바친 국제 김일성상사리사회, 국제김정일상사리사회

서기장인 비슈와나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을 추모하여 목상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오가미 쟁이씨 사무국장의 개회사에 이어 지승철부위원장님의 축하연설이 있었다.

라몬 히메네스 로페스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부리사장 겸 라틴아메리카 주체사상연구소 위원장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본질로 하는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된다고 하면서 인민대중의 자주적리사를 참담게 실현하며 그들을 세계와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만드는것이 바로 김일성-김정일주의가 내세우는 총적목표이고

승고한 리상이라고 말하였다.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의 혁명사상은 김정은각하에 의하여 더욱 심화발전되고있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김일성-김정일주의가 위대한 현실을 낳으며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을 발휘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면서 주체사상신봉자들은 인류력사상 불멸의 혁명사상으로 인민대중의 승리와 영광의 역사를 굳건히 이어 놓으신 김일성주석과 김정일총비서, 김정은각하께 뜨거운 감사와 가장 숭고한 경의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온갖 지배와 억압을 반대하고 자주적으로 살려는 인류의 지향과 념원은 더욱 강렬해지고있으며 정의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의 흐름은 그 누구도 막을수 없다고 하면서 그는 세계자주화위업을 추동하자면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지침으로 삼아야 할것이라고 토론했다.

그는 자주와 평화, 번영에 대한 시대적흐름이 고조되고있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연구보급사업을 더욱 활성화해나가기 위한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의 역할을 높여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현시대 세계자주화위업수행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가 가리키는 길로 나아가며 자유와 평화, 번영에 대한 인류의 념원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라는 확신을 그는 표명하였다.

보고자는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세계자주화위업의 승리를 하루빨리 앞당겨오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해나갈것을 호소하였다.

토론회에서는 《세계혁명위업에 리론실천적기여를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주체사상》, 《주체사상에 뿌리를 두고있는 선군정치, 세계의 자주화위업과 개조에서 선군정치의 중요성》, 《선군정치는 나라와 민족의 리익수호의 본보기》, 《김정은제1비서의 연설 (혁명적인 사상공세로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지)》(2014년 2월 25일)를 학습하고, 《김일성-김정일주의와 사회호상관계》,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인류의 자주위업》,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자주시대의 위대한 사상이다》라는 제목의 토론회가 있었다.

그들은 주체사상과 선군정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리론을 포괄하고 있는 현시대의 진보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세계인민들에게 자주와 독립의 길을 밝혀주었다고 열렬히 격찬하였다.

빛나는 사상의 전통은 김정은원수님께서 의하여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이어지고있으며 조선은 김일성-김정일주의에 기초하여 주체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였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토론자들은 인민들이 모든 문제들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풀어나가도록 이끌어주는 철세위인들의 사상을 김정은각하께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정식화하신것은 정당한것이라고 하면서 여러 나라들이 구체적인 조건과 환경에 맞게 위대한 사상을 구현해나가는데서 나서는 과업들을 피력하였다.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은 진보적인인류와 굳게 편대하여 세계자주화위업을 위해 적극 투쟁해나갈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토론을 마치면서 그들은 《불멸의 주체사상 만세!》,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등의 구호들을 소리높이 웨치였다.

토론회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리는 편지가 참가자들의 열광적인 박수속에 채택되였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길을 따라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가자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김영남동지의 보고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의 명맥을 끊듯이 이어나가는 태양민족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2돐을 성대히 경축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4월 15일은 우리 인민의 앞길에 광명한 미래를 펼쳐준 민족대통운의 날이며 자주시대의 태양을 맞이한 인류사적대경사의 날입니다. 경사스러운 태양절을 맞이하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면서 배우고 시작될 주체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완성해나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남녘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세계 진보적인민들도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아버지로, 인류해방의 구심점으로 높이 칭송하며 4월의 명절을 우리 민족과 인류공동의 가장 큰 명절로 경축하고 있습니다.

꽃잎은 이 자리에서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의 다함없는 경의를 담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동지들!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업적을 혁명위업이 영원히 힘차게 전진할 수 있는 만년토대입니다.

조선혁명이 자기의 붉은 기록에 승리와 영광만을 아로새기며 세기를 이어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것은 그 개척이 성스럽고 전통이 위대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억년 드물지 않는 초석을 마련하신 주체혁명위업의 개척자입니다.

대대로 애국자이며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어 10대에 조국해방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혁명의 진로를 밝혀주시고 항일의 혈전만리, 눈보라만리를 헤치시며 주체혁명의 새길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뜻을 올린 그날로부터 자주와 선군, 사회주의의 불변제도를 따라 전진하는 현대조선의 새 력사가 시작되었으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운동사에 위대한 전환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의 시원이 열리고 세대와 세기를 이어갈 주체의 혁명전통이 마련되었으며 우리 당과 국가와 군대, 우리 제도의 기틀이 세워지고 굳건히 다져지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빛을 뿌리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전위물들과 우리 인민이 누리는 끝없는 행복을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조선혁명의 열로와 잇닿아 있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혁명의 대가 열백만 바뀌어도 주체혁명의 개척자, 혁명전통의 창시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며 수령님의 언덕을 천만년 길이길이 전해갈 것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시원을 열어 놓으시고 장구한 혁명투쟁과정에서 주체혁명위업완성과 자주시대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하여주시었습니다. 격동하는 20세기의 년대와 년대들을 승리와 위훈으로 빛내시며 휘황찬란한 21세기에로의 길을 열어 주신 바로 여기에 아버지수령님의 위대성이 있고 불멸의 공적이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과 진보적인류에게 자주위업을 향도하는 불멸의 지도사상을 안겨주시는 혁명의 대성인이시며 사상리론의 지장이십니다.



일찌기 력사무대에 도래한 자주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환히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은 인민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에 의거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해나가야 한다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하시고 독창적인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정력적인 사상리론을 활동으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계, 모든 분야의 리론실천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서 인류의 사상리론적보물고를 끝없이 발전 풍부화하시었습니다.

사람중심의 철학적원리로부터 사회제도, 자연개조, 인간개조에 관한 리론과 혁명명도방법,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리론과 온 세계의 자주화를 실현할데 대한 사상에 이르기까지 시대가 제기하는 리론실천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은 인류사상발전의 최고봉을 이루는 혁명의 대백과사전입니다.

파괴주의에 혁명위업의 승리가 있고 민족의 자주독립도 있다는 선군의 진리를 밝히시고 력사상 처음으로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어 반제자주위업의 백승의 보검을 마련해 주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특출한 사상리론적업적입니다.

우리 혁명이 반제계급투쟁의 전초선에서 편전편승을 이룩하며 세기적인 변혁과 기적을 창조할수 있었던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선군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류사상사에는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진보적인 사상들이 적지 않았지만 주체사상, 선군사상처럼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가 범람하는 속에서 사소한 변색을 모르고 자주시대 지도사상으로서의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며 불패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해온 혁명사상은 없었습니다.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앞으로 온 인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사상으로서, 인민대중의 혁명투쟁을 향도하는 필승불패의 기치로 영원히 빛을 뿌릴 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의 운명개척에서 근본적전환을 이룩하시어 이 땅위에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민족재생의 은인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항일대군을 승리로 이끄시어 민족해방의 력사적위업을 성취하시고 미제를 타도하여 조국과 민족의 명맥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민은 자기 운명을 자기의 힘으로 개척해나가는 새 사회건설의 참다운 주인으로, 세계가 경탄하는 영웅적인인물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시대와 혁명발전,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현명하게 통치하시어 우리 인민을 착취와 억압에서 영원히 해방시켜주시고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면 시키시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시대에 이르러 온 대국들에 의하여 통탄당하던 우리 조선이 주체성과 민족성이 훌륭히 구현된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나고 가난과 몸매속에 해매던 우리 인민이 자주적인 생활을 창조해나가는 민족혁명의 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꽃피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아버지수령님의 한평생이 깃들어있는 가장 귀중한 혁명유산입니다.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구현하시어 사회주의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어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만민의 아버지로,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후손만대에 길이 칭송될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위한 강위력한 정치적주기를 마련하신 회세의 정치가이십니다.

20세기 정치사에는 이름있는 정치가들이 많았지만 우리 수령님과 같이 반제기에 걸치는 오래고도 영광스러운 시정력사를 수놓으며 당건설과 국가건설, 군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혁명승리의 강력한 정치군사적담보를 마련해주시어 위대한 정치가는 없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전진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시어 우리 당을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서 하여 사상의지적으로 통일단결된 혁명정당으로,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대를 이어 계승되는 혁명위업을 확신성있게 이끌어가는 전도양양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우리의 사회주의정권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시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시었다 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오늘과 같은 격변하는 정치정세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자기 선명한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할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키시어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국가가 든든하며 우리 군대가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주시고

온 나라를 서로 돕고 이끄는 화목한 사회주의대가정으로 꾸러주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 력사의 갈피마다에는 탁월한 10명 당원들과 강선의 로동계급, 태성할바니를 비롯하여 평범한 인민들과 맺어진 가슴뜨거운 혼연일체의 서사가 새겨져있으며 각이한 인생행로를 걸은 사람들을 한몸에 안아 보람찬 혁명의 길로 이끌어주시는 아버지사랑이 전설처럼 수놓아져 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한 건설을 현명하게 통치하시어 우리 인민을 착취와 억압에서 영원히 해방시켜주시고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면 시키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시대와 혁명발전, 인민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현명하게 통치하시어 우리 인민을 착취와 억압에서 영원히 해방시켜주시고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면 시키시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시대에 이르러 온 대국들에 의하여 통탄당하던 우리 조선이 주체성과 민족성이 훌륭히 구현된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나고 가난과 몸매속에 해매던 우리 인민이 자주적인 생활을 창조해나가는 민족혁명의 대 전성기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인민의 아름다운 꿈과 리상이 꽃피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는 아버지수령님의 한평생이 깃들어있는 가장 귀중한 혁명유산입니다.

이민위천의 숭고한 리념을 구현하시어 사회주의건설의 세계적모범을 창조하시어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만민의 아버지로, 사회주의조선의 시조로 후손만대에 길이 칭송될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주체혁명위업의 승리적전진과 완성을 위한 강위력한 정치적주기를 마련하신 회세의 정치가이십니다.

20세기 정치사에는 이름있는 정치가들이 많았지만 우리 수령님과 같이 반제기에 걸치는 오래고도 영광스러운 시정력사를 수놓으며 당건설과 국가건설, 군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혁명승리의 강력한 정치군사적담보를 마련해주시어 위대한 정치가는 없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전진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시어 우리 당을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서 하여 사상의지적으로 통일단결된 혁명정당으로,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대를 이어 계승되는 혁명위업을 확신성있게 이끌어가는 전도양양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우리의 사회주의정권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시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시었다 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오늘과 같은 격변하는 정치정세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자기 선명한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할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키시어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국가가 든든하며 우리 군대가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주시고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천세만세 영생하실것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굳건히 계승되어왔으며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고있습니다.

대를 이어 백두산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백두의 위업을 하나의 사상, 하나의 전통, 하나의 궤도를 따라 빛나게 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최대의 행복이며 자랑입니다.

누리에 빛나는 태양의 위업을 굳건히 이어가는데는 필생의 사명으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장상 수실 강성국가건설과 주체혁명위업완성의 천하대본으로 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을 민족지상의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그 실현을 위하여 커다란 심혈을 기울이시어 조국통일3대 원칙과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비롯하여 공명정대하고 합리적인 조국통일원칙과 방도들을 제시하시어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주시었습니다.

은 거레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을 민족대단결의 길로 이끌어주시어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아버지로, 조국통일의 구심점으로 끝없이 흠모하며 받들어나가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반제자주위업이 힘있게 전진하도록 하시어 온 세계의 민족주의의 지리를 지니시고 독립과 자주,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여러 나라 인민들을 정신적으로 지원하시어 인류해방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인적품모와 자주시대의 앞길을 빛나게 개척하시어 영광스러운 시정력사를 수놓으며 당건설과 국가건설, 군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혁명승리의 강력한 정치군사적담보를 마련해주시어 위대한 정치가는 없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전진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시어 우리 당을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서 하여 사상의지적으로 통일단결된 혁명정당으로,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대를 이어 계승되는 혁명위업을 확신성있게 이끌어가는 전도양양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우리의 사회주의정권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시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시었다 고 말하였습니다.

우리 인민이 오늘과 같은 격변하는 정치정세속에서도 흔들림없이 자기 선명한 주체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할수 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건하시고 강화발전시키시어 우리 당이 강하고 우리 국가가 든든하며 우리 군대가 굳건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랑과 믿음의 정치, 인덕정치로 광범한 대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주시고

은 거레는 북과 남, 해외의 모든 동포들을 민족대단결의 길로 이끌어주시어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조국통일을 위하여 헌신하신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영원한 아버지로, 조국통일의 구심점으로 끝없이 흠모하며 받들어나가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온 세계의 자주화에 관한 전략전술을 제시하시고 반제자주위업이 힘있게 전진하도록 하시어 온 세계의 민족주의의 지리를 지니시고 독립과 자주,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싸우는 여러 나라 인민들을 정신적으로 지원하시어 인류해방위업에 커다란 공헌을 하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위인적품모와 자주시대의 앞길을 빛나게 개척하시어 영광스러운 시정력사를 수놓으며 당건설과 국가건설, 군건설을 현명하게 이끄시어 혁명승리의 강력한 정치군사적담보를 마련해주시어 위대한 정치가는 없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적전진건설의 독창적인 길을 개척하시어 우리 당을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서 하여 사상의지적으로 통일단결된 혁명정당으로, 광범한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고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대를 이어 계승되는 혁명위업을 확신성있게 이끌어가는 전도양양한 당으로 강화발전시키시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우리의 사회주의정권을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시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시었다 고 말하였습니다.

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입니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오늘을 김정은시대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꾸러놓으신 귀중한 씨앗이 만복의 열매로 주렁주렁 번영의 시대이며 우리 인민의 꿈과 리상이 눈앞의 현실로 펼쳐지게 되는 희망의 시대입니다.

희세의 정치가이시며 창조적 거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우리 혁명의 전두에 서계시고 령도자의 두리에 철물같이 뭉친 당과 군대, 인민의 일심단결이 있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은 반드시 빛나게 실현될것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오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고 의지이며 시대와 력사의 뜻입니다.》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일성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모신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끝까지 이어 나감으로써 아버지수령님의 후손,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 제자로서의 사명과 의리를 다해나갈것입니다.

우리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일성동지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주체의 최고성지로 더욱 훌륭히 꾸리고 결사보위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무장하기 위한 일대 사상공세를 벌이며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일색화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실현해나가야 하겠습니다.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분,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생생선으로 틀어쥐고 새대와 새대를 이어 끝없이 빛내 나가며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결사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당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일련단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굳게 믿고 따르며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전철히 옹호보위하여야 하며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전당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혁명적기풍을 확고히 세움으로써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이고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인민군대를 백두의 대업을 충대로 믿음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수령의 군대, 백두산혁명군으로 더욱 강화하고 군민대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며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위물들을 굳건히 수호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과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의 정신을 받들고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해나감으로써 우리 사상, 우리 제도, 우리 위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유훈을 받들어 전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자주통일, 평화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감으로써 삼천리강토에 존엄높고 강성번영하는 통일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울것입니다.

우리는 년대와 년대를 이어오며 견지하여온 자주와 민족의 원칙, 혁명의 원칙을 변함없이 고수해나갈것이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수호하고 인류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적극 투쟁해나갈것입니다.

불멸의 태양기를 높이 날리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따라 나아가는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독립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겠습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모든 단위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령도업적을 생생선으로 틀어쥐고 새대와 새대를 이어 끝없이 빛내 나가며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결사관철하여야 하겠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것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끝까지 실현하기 위한 결정적담당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일련단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굳게 믿고 따르며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전철히 옹호보위하여야 하며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하겠습니다.

전당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의지대로만 사고하고 행동하는 혁명적기풍을 확고히 세움으로써 당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높이고 우리 당을 영원히 영광스러운 김일성,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령도를 받들어 인민군대를 백두의 대업을 충대로 믿음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수령의 군대, 백두산혁명군으로 더욱 강화하고 군민대단결을 반석같이 다지며 사회주의조국과 혁명의 전위물들을 굳건히 수호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과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의 정신을 받들고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해나감에 대하여 강조하였습니다.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네》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2돐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 각 도, 시(구역), 군, 연합기업소들에서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2돐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가 14일 각 도, 시(구역), 군, 연합기업소들에서 진행되었다.

보고대회 및 보고회장들의 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 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보고대회 및 보고회장들에 나붙어 있었다.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라는 구호들이 나붙어 있었다.

지방당, 정권기관, 근로단체 인민들, 각계층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보고대회 및 보고회들은 《김일성정권의 노래》 주악으

로 시작되었다. 해당 단위의 일꾼들이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2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는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아버지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조선혁명의 영광스러운 시원을 열어놓으시고 억년 드물지 않는 초석을 마련하신 주체혁명의 개척자이시라는 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조선혁명의 뜻을 올린 그날로부터 자주성을 위한 인민대중의 혁명운동사에 전환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혁명의 대가 열백

번 바뀌어도 주체혁명의 개척자, 혁명전통의 창시자이시며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어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단계, 모든 분야의 리론실천문제들을 전면적으로 밝혀하시어 인류사상의 보물고를 끝없이 풍부화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력사상 처음으로 총대중시, 군사중시사상과 로선을 제시하시어 반제자주위업의 보검을 마련해 주신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특출한 사상리론적업적이라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두단계의 사회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을 승리적으로 령도하시어 우리 조국을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면시키시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 당을 주체사상을 지도사상으로서 하여 사상의지적으로 통일단결된 혁명정당으로, 인민대중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켰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정권이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시었다 고 말하였습니다.

인민군대를 당과 조국을 보위하는 일당백의 혁명투쟁으로 강화발전시키시어 인민대중의 자주적권리의 대표자, 창조적능력과 활동의 조직자, 인민생활을 책임진 호주, 인민의 리익의 보호자로서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도록 하시었다 고 말하였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굳건히 계승되었으며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찬란한 현실로 꽃피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혁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결철히 옹호고수하고 전면적으로 계승발전시키시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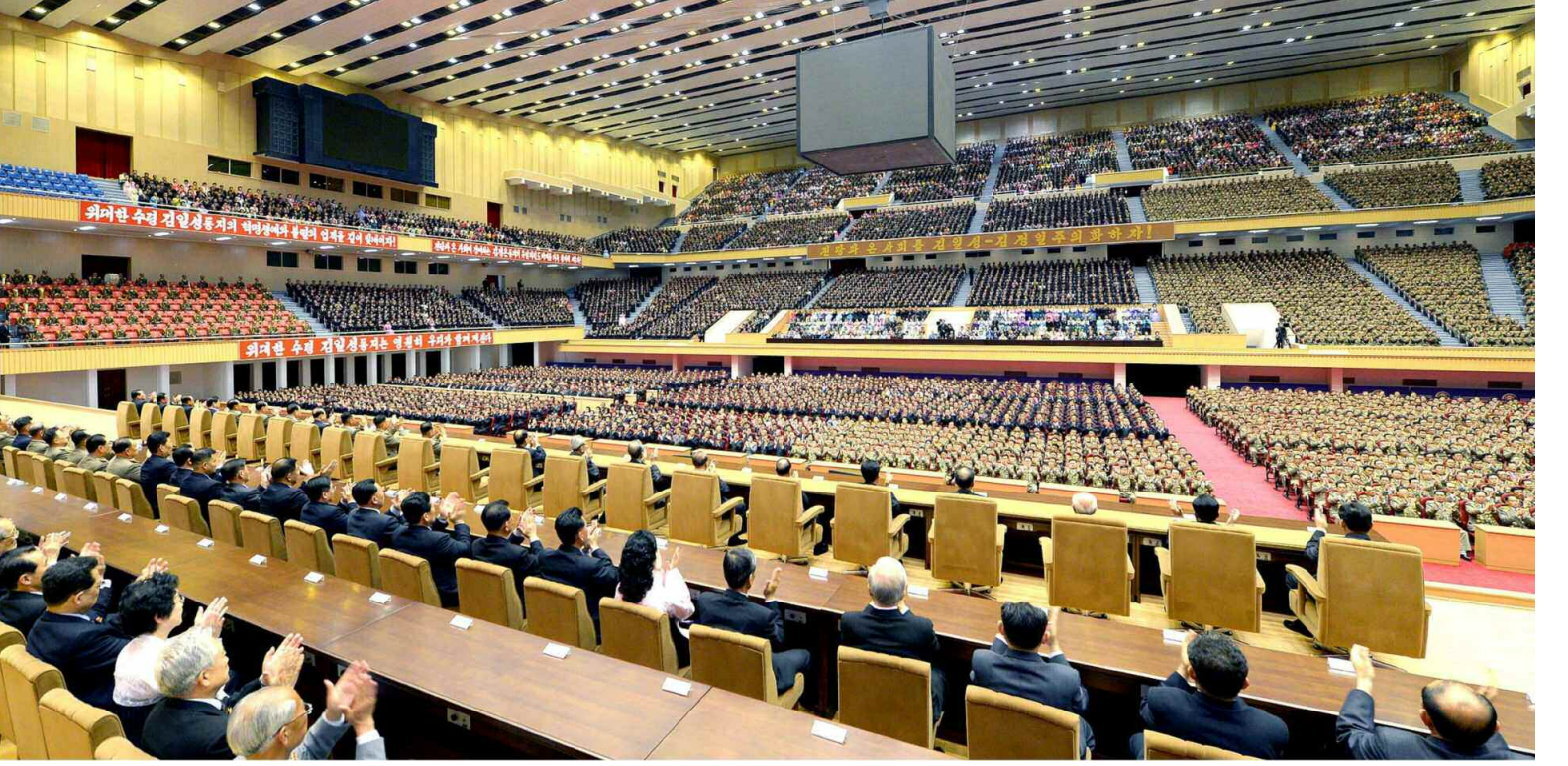
위대한 장군님께서 독창적인 선군정치를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신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승완성해나갈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한 거대한 공적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장 고결한 총정과 도덕리념을 지니시고 수령영생위업을 최상의 경지에서 실현하시어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일성동지의 혁명력사가 이 땅위에 끝없이

호르도록 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 승리와 영광의 기치로 더 높이 휘날리고 우리 혁명이 자주, 선군,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드림없이 전진하고 있다.

은 나라에 김정일애국주의가 차넘치고 사회주의부귀영화의 대번영기가 펼쳐지고 있는 대변영 현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탁월한 령도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오려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신념이고 의지이며 시대와 력사의 뜻입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2돐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 각 도, 시(구역), 군, 연합기업소들에서 진행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은 철두철미 《천안》호사건의 복사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 진상 공개장

지금 남조선당국이 동족대결의 범위를 정치, 군사분야만이 아닌 사회의 모든 영역에까지 확대하기 위한 반공화국남조선, 모략극들을 계속 꾸며내고 있다.

그것이 은 납북평을 대혼란속에 몰아넣고 있는 그 무는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이다.

《중앙합동조사단》이라는것을 조직하여 발견하였다는 무인기들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한다 어쩐다 하

며 북삭소통을 피워대던 남조선당국은 드디어 4월 11일 《북소행》으로 단정한 《중간조사결과》를 공식발표하였다.

이미전부터 무인기사건의 배후에 《북이 있다.》고 정해놓은 상태에서 그를 입증하는데로 조사방향을 집어넣고있었다는것을 놓고볼 때 《중앙합동조사단》 발표는 별로 놀라운것이 아니다.

우리는 발생한지 4년이 된 《천

안》호사건이 흐지부지되고있는 마당에서 남조선당국이 제2의 모략극을 날조해낼수도 있다는것을 예감하였던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검열단은 남조선당국이 떠돌아대고있는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이 철두철미 《천안》호사건의 복사판이라고 확언하면서 지금까지 밝혀진 사건진상을 그대로 세상에 공개한다.

데 얼마나 몰두하였는지 초기 실연한 지명을 며칠후에 다시 정정하여 발표한다는것이 오히려 더 큰 물의를 일으켰다. 전번에 잘못 발표한 지명을 정확히 밝힌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무인기리륙지점이 황해남도 용진부근의 한 비행장이라고 한것이다.

우리는 용진부근에 비행장이 있다는 말을 들은적이 없다.

이제 GPS북극좌표를 해독하고 비행경로를 검증하여 리륙지점을 밝힌다고 하는데 모를지그 리륙지점이 북이라고 조작해낼것이다.

《북이 아니면 누구?!》로 된 항공거리

《주변국에서 발견하기에는 짧은 거리고 그렇다고 남한내에서 한것은 아니기때문에 북에서 했다고 볼 수밖이 없다.》, 이는 《중간조사결과》발표에서 무인기의 항공거리를 《북소행》으로 판단한 대목이다.

남조선군당국은 연료통크기와 기판배기량, 촬영된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무인기가 최저 180km에서 최고 300km의 항공거리를 가진것으로 분석했다고 하였다.

남조선당국은 이러한 항공거리를 놓고 《북소행》으로 단정짓기에는 제스스로도 부끄럽고 개념없었던지 감상조건이나 왕복거리까지 더 고려해보았다고 덧붙였다.

항공거리가 짧으면 짙어서 《북소행》이고 항공거리가 길면 길어서 《북소행》으로 된다는 격이다.

그렇다면 항공거리가 짧은 이 세상의 모든 비행체는 그것대로, 항공거리가 긴 비행체는 또 그것대로 다 《북비행체》란 말인가.

제 중심을 달성하지나 이런 생각지도 꺼리낌없이 부러대는것이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남조선내부에서 단타더로 반박해나섰다.

총체적무게가 12kg인 무인기가 항공거리 300km에 필요한 연료를 5kg이나 장차하면 뜨지조차 못한다는것이다.

그야말로 웃지도 못하지 못할 희극이 아닐수 없다.

나 발칸포의 최대사거리가 2km밖에 안되기에 5-6km고도를 유지하며 비행하는 무인기를 겨주할수 없었다고 변명하였다.

《중앙합동조사단》은 제편에서 이런 말을 내뱉었는데에 대해 같같은 아니기때문에 북에서 했다고 볼 수밖이 없다.》, 이는 《중간조사결과》발표에서 무인기의 항공거리를 《북소행》으로 판단한 대목이다.

남조선군당국은 연료통크기와 기판배기량, 촬영된 사진 등을 검토한 결과 무인기가 최저 180km에서 최고 300km의 항공거리를 가진것으로 분석했다고 하였다.

1. 무인기사건의 실상

지난 3월 25일 경기도 파주시 봉암리천주변 야산에서 한 민간인이 추락된 무인기를 발견하였다고 한다.

이로부터 한주일후인 3월 31일 백령도 사곶곶에서도 무인기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남조선군당국은 《대공공용의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이 무인기가 《골동품》으로서 《민간에서 만든 수준》이기때문에 《안보위협》은 크게 없다고 하였다.

이 무인기들을 남조선에 있는 애호가들이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그 정형을 조사해보려 한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바로 이러한 때 무인기 1대가 강원도 삼척시 하장면 청용산중턱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

지난해 10월 4일경 약초채취를 하던 한 주민이 야산에 추락한 무인기를 보았다는 신고를 받고 찾아냈다는것이다.

남조선국방부는 강원도에서 발견된 소형무인기에 대해서는 시작부터 《북소행》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그를 입증하기 위해 《중앙합동조사단》에서 정밀분석할것이며 조속한 시간내에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할것이라고 하였다.

청와대 대변인도 공식석상에서 백령도와 파주에 국적불명의 무인기가 추락한데 대해 《북소행》으로 단정하고 검토하기 위해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수도방위사령부》 등이 대비책을 발표하게 된다고 선언하였다.

말하자면 《북소행》에 초점을 맞춘 《짜맞추기수사》를 진행한다는것을 꺼리낌없이 공개한것이다.

남조선군당국은 4월 2일 무인기들이 북에서 날려보냈것이라고 결론한 1차 《조사결과》라는것을 서둘러 발표하였다.

무인기의 발견위치와 시점, 카메라에 촬영된 내용, 내부장치와 외부색 등이 서로 유사하기때문이며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가 북쪽에서 날아왔고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 《북쪽색갈》이 띄여져있다는 점에 서로 모두 《북의 제품》으로 판단할수 있다는것이다. 여기에 2012년 4월 우리의 열병식때 등장하였던 무인기와 비록 차이는 있지만 도색방식과 기판중공, 착륙용락하산탐재방식 등이 비슷한것도 증거라고 덧붙였다.

남조선국방부는 《조사결과》에서 이번 무인기의 추락원인에 대한 분석자도 내놓았다.

그에 의하면 자체결함으로 추락하였거나 북이 의도적으로 추락시켜 저들의 대공태세를 타진해보는것과 함께 남조선사회에 긴장과 혼란을 조성해보려 하였을수 있다는 어정쩡한 소리뿐이었다.

다만 무인기추락이 박근혜를 향한 《무연의 혐의》일수 있다는것은 확정짓진않것처럼 강조하였다.

조기 공개했던 자료들도 대공 수정변경하였다.

무인기기에 없었다던 송수신장치도 파주부분에 달려있었다는것으로 바뀌었으며 청와대에 근접하지 않았던 무인기가 속사까지 촬영한 사진들도 내놓았다.

무인기사건은 《북소행》으로 공개한 즉시 남조선당국은 자정이 넘은 한밤중에 《국가안보보장회의》를 열어놓고 3시간이 넘도록 무인기

조사결과에 따른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어 《진군주요지휘관회의》가 긴급소집되었다.

특히 박근혜는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를 소집해놓고 우리의 로켓개발사와 추가핵실험가능성 등에 대하여 비난해대다 못해 《북의것》으로 추날아왔고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에 《북쪽색갈》이 띄여져있다는 점에 서로 모두 《북의 제품》으로 판단할수 있다는것이다. 여기에 2012년 4월 우리의 열병식때 등장하였던 무인기와 비록 차이는 있지만 도색방식과 기판중공, 착륙용락하산탐재방식 등이 비슷한것도 증거라고 덧붙였다.

남조선진심은 이러한 당국의 움직임에는 아랑곳없이 《정체불명의 무인기 군공방망을 무인기정도로 해집고나서.》, 《무인기 하나에 온통 뒤집힌 이남평》, 《호연하면 청와대방공망에 치명적인 구멍을 송송 뚫어 놓은 무인기가 북의것이 아니라?》, 《아닐새라 이번에도 북에 책임 떠넘기는 당국》 등 실랄한 야유조소를 쏟아내고있으며 군사불한 양 검관진이 무인기의 《북소행》을 떠돌며 자폭가능까지 가능하다고 한데 대해서는 《과파괴기 더 굉장하고 정확한 미사일을 보유하고있는 북이 굳이 무인기로 공격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해버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민심에는 관णी이 남조선국방부는 4월 11일 또다시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을 고집하는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그것이 거센 반발과 의혹만 불러일으키게 되자 현재 발견된 무인기의 GPS에 입력된 북극좌표가 《해운》 필적이 우려돼 해독을 요구하였다고 하면서도 《북소행》인것만은 분명하다는 식으로 객관 여론을 확대시키고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버티던 무인기사건의 객관적인 실상이다.

《북조선색갈》로 공인된 하늘색과 흰색

남조선당국은 무인기들이 《북의것》이라고 확증할수 있는 증거로 동색색갈이 하늘색이기때문이라고 하였다.

다시말하여 동체에 하늘색바탕과 흰색구름무늬를 하였기때문에 우리의 무인기이며 그 색갈이 열병식에 나타난 우리 장비색갈과 같기때문에 《북의것》이 분명하다는것이다.

그러면서 동체의 도색을 놓고 무작정 우리를 결코듣기가 아무래도 못하였던지 전과탐지 및 육안감시를 피하기 위해 위장도색을 한것이라고 하였다.

아무리 날조에 이골이 난 능수라고 하여도 《북소행》임을 입증하기가 여간 조연치 않았던 모양이다. 나중에는 동색색갈까지 우리와 연계시키니 말이다.

남조선당국의 주장대로 한다면 하늘색이나 흰색은 다 《북조선색갈》이라는것인데 이에 공감할 사람이 세상에 있거나 하겠는지 모르겠다.

다른 나라들은 플라도 현재 하늘색과 흰색으로 된 옷을 입거나 물품을 소유하고있는 남조선사람들은 즉시 다른 색깔로 교체하여야 할것 같다.

자칫하면 그들모두가 《중공》으로 몰려 추책을 차고 감옥에 갈수 있다

남조선당국은 이러한 항공거리를 놓고 《북소행》으로 단정짓기에는 제스스로도 부끄럽고 개념없었던지 감상조건이나 왕복거리까지 더 고려해보았다고 덧붙였다.

항공거리가 짧으면 짙어서 《북소행》이고 항공거리가 길면 길어서 《북소행》으로 된다는 격이다.

그렇다면 항공거리가 짧은 이 세상의 모든 비행체는 그것대로, 항공거리가 긴 비행체는 또 그것대로 다 《북비행체》란 말인가.

제 중심을 달성하지나 이런 생각지도 꺼리낌없이 부러대는것이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남조선내부에서 단타더로 반박해나섰다.

총체적무게가 12kg인 무인기가 항공거리 300km에 필요한 연료를 5kg이나 장차하면 뜨지조차 못한다는것이다.

그야말로 웃지도 못하지 못할 희극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아무래도 《북소행》을 안받침하는 근거자료들이 미미한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2010년 3월 《천안》호가 《북이외공격》에 의해 침몰될 때도 전과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무인기로 《천안》호의 항로를 추적하고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내부에서 단타더로 반박해나섰다.

총체적무게가 12kg인 무인기가 항공거리 300km에 필요한 연료를 5kg이나 장차하면 뜨지조차 못한다는것이다.

그야말로 웃지도 못하지 못할 희극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아무래도 《북소행》을 안받침하는 근거자료들이 미미한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2010년 3월 《천안》호가 《북이외공격》에 의해 침몰될 때도 전과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무인기로 《천안》호의 항로를 추적하고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내부에서 단타더로 반박해나섰다.

총체적무게가 12kg인 무인기가 항공거리 300km에 필요한 연료를 5kg이나 장차하면 뜨지조차 못한다는것이다.

그야말로 웃지도 못하지 못할 희극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국방부는 《조사결과》에서 이번 무인기의 추락원인에 대한 분석자도 내놓았다.

그에 의하면 자체결함으로 추락하였거나 북이 의도적으로 추락시켜 저들의 대공태세를 타진해보는것과 함께 남조선사회에 긴장과 혼란을 조성해보려 하였을수 있다는 어정쩡한 소리뿐이었다.

다만 무인기추락이 박근혜를 향한 《무연의 혐의》일수 있다는것은 확정짓진않것처럼 강조하였다.

조기 공개했던 자료들도 대공 수정변경하였다.

무인기기에 없었다던 송수신장치도 파주부분에 달려있었다는것으로 바뀌었으며 청와대에 근접하지 않았던 무인기가 속사까지 촬영한 사진들도 내놓았다.

무인기사건은 《북소행》으로 공개한 즉시 남조선당국은 자정이 넘은 한밤중에 《국가안보보장회의》를 열어놓고 3시간이 넘도록 무인기

남조선국방부는 《조사결과》에서 이번 무인기의 추락원인에 대한 분석자도 내놓았다.

그에 의하면 자체결함으로 추락하였거나 북이 의도적으로 추락시켜 저들의 대공태세를 타진해보는것과 함께 남조선사회에 긴장과 혼란을 조성해보려 하였을수 있다는 어정쩡한 소리뿐이었다.

다만 무인기추락이 박근혜를 향한 《무연의 혐의》일수 있다는것은 확정짓진않것처럼 강조하였다.

조기 공개했던 자료들도 대공 수정변경하였다.

무인기기에 없었다던 송수신장치도 파주부분에 달려있었다는것으로 바뀌었으며 청와대에 근접하지 않았던 무인기가 속사까지 촬영한 사진들도 내놓았다.

무인기사건은 《북소행》으로 공개한 즉시 남조선당국은 자정이 넘은 한밤중에 《국가안보보장회의》를 열어놓고 3시간이 넘도록 무인기

남조선당국은 이러한 항공거리를 놓고 《북소행》으로 단정짓기에는 제스스로도 부끄럽고 개념없었던지 감상조건이나 왕복거리까지 더 고려해보았다고 덧붙였다.

항공거리가 짧으면 짙어서 《북소행》이고 항공거리가 길면 길어서 《북소행》으로 된다는 격이다.

그렇다면 항공거리가 짧은 이 세상의 모든 비행체는 그것대로, 항공거리가 긴 비행체는 또 그것대로 다 《북비행체》란 말인가.

제 중심을 달성하지나 이런 생각지도 꺼리낌없이 부러대는것이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남조선내부에서 단타더로 반박해나섰다.

총체적무게가 12kg인 무인기가 항공거리 300km에 필요한 연료를 5kg이나 장차하면 뜨지조차 못한다는것이다.

그야말로 웃지도 못하지 못할 희극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이러한 항공거리를 놓고 《북소행》으로 단정짓기에는 제스스로도 부끄럽고 개념없었던지 감상조건이나 왕복거리까지 더 고려해보았다고 덧붙였다.

항공거리가 짧으면 짙어서 《북소행》이고 항공거리가 길면 길어서 《북소행》으로 된다는 격이다.

그렇다면 항공거리가 짧은 이 세상의 모든 비행체는 그것대로, 항공거리가 긴 비행체는 또 그것대로 다 《북비행체》란 말인가.

제 중심을 달성하지나 이런 생각지도 꺼리낌없이 부러대는것이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남조선내부에서 단타더로 반박해나섰다.

총체적무게가 12kg인 무인기가 항공거리 300km에 필요한 연료를 5kg이나 장차하면 뜨지조차 못한다는것이다.

그야말로 웃지도 못하지 못할 희극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아무래도 《북소행》을 안받침하는 근거자료들이 미미한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2010년 3월 《천안》호가 《북이외공격》에 의해 침몰될 때도 전과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무인기로 《천안》호의 항로를 추적하고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내부에서 단타더로 반박해나섰다.

총체적무게가 12kg인 무인기가 항공거리 300km에 필요한 연료를 5kg이나 장차하면 뜨지조차 못한다는것이다.

그야말로 웃지도 못하지 못할 희극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아무래도 《북소행》을 안받침하는 근거자료들이 미미한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2010년 3월 《천안》호가 《북이외공격》에 의해 침몰될 때도 전과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무인기로 《천안》호의 항로를 추적하고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내부에서 단타더로 반박해나섰다.

총체적무게가 12kg인 무인기가 항공거리 300km에 필요한 연료를 5kg이나 장차하면 뜨지조차 못한다는것이다.

그야말로 웃지도 못하지 못할 희극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아무래도 《북소행》을 안받침하는 근거자료들이 미미한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2010년 3월 《천안》호가 《북이외공격》에 의해 침몰될 때도 전과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무인기로 《천안》호의 항로를 추적하고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내부에서 단타더로 반박해나섰다.

총체적무게가 12kg인 무인기가 항공거리 300km에 필요한 연료를 5kg이나 장차하면 뜨지조차 못한다는것이다.

그야말로 웃지도 못하지 못할 희극이 아닐수 없다.

2. 터무니 없는 《북소행》설

남조선당국의 《중간조사결과》를 비롯하여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은 발표되자마자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비상식적인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북소행》으로 《확실시》된다고 지적한 사실자료들만 보아도 정체불명의 무인기사건은 《천안》호사건때를 신통히도 편상해 하고있다.

말 못하는 《증인》으로 나선 사진들

남조선당국은 무인기들에서 나온 촬영사진들이 《북소행》을 입증하는 가장 위력한 증거라고 하였다.

파주에서 수거한 무인기의 경우 북쪽에서 서울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청와대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도북부의 주요시설들을 촬영한 사진 193장이 나왔다고 하였다.

백령도에 수거한 무인기도 소정에서 대동강을 거쳐 백령도로 날아가는 도중 남측의 군사시설물들을 100여장이나 촬영하였다고 하면서 이것만 보아도 북에서 무인기를 보냈다는것을 강하게 뒤받침해준다고 하였다.

남측의 논리대로 한다면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오가는 비행체는 다 《북의것》으로 되며 그것이 어떤 물체이든 남측지역을 촬영한 사진들이 나오면 모두 《북의것》으로 된다는것이다.

그렇다면 군사분계선 북측지역에서 남과 북으로 오가는 비행체는 다 남조선의것이며 북측지역을 촬영한 사진이 나오면 그 비행체 역시 남조선의것이라는 귀결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건해명치고는 단순함을 벗어나 유치하고 천박하기 그지없다.

하긴 얼마나 공색했으면 무인기의 비행방향과 말 못하는 사진을 《증인》으로까지 내세웠는가 하는것이다.

아마도 사진들이 《일》을 열게 된다면 《북소행》을 떠드는 모략자들의 뺨을 정신이 번쩍 들게 후려갈것을겠것이다.

남조선당국의 《중간조사결과》를 비롯하여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은 발표되자마자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비상식적인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북소행》으로 《확실시》된다고 지적한 사실자료들만 보아도 정체불명의 무인기사건은 《천안》호사건때를 신통히도 편상해 하고있다.

말 못하는 《증인》으로 나선 사진들

남조선당국은 무인기들에서 나온 촬영사진들이 《북소행》을 입증하는 가장 위력한 증거라고 하였다.

파주에서 수거한 무인기의 경우 북쪽에서 서울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청와대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도북부의 주요시설들을 촬영한 사진 193장이 나왔다고 하였다.

백령도에 수거한 무인기도 소정에서 대동강을 거쳐 백령도로 날아가는 도중 남측의 군사시설물들을 100여장이나 촬영하였다고 하면서 이것만 보아도 북에서 무인기를 보냈다는것을 강하게 뒤받침해준다고 하였다.

남측의 논리대로 한다면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오가는 비행체는 다 《북의것》으로 되며 그것이 어떤 물체이든 남측지역을 촬영한 사진들이 나오면 모두 《북의것》으로 된다는것이다.

그렇다면 군사분계선 북측지역에서 남과 북으로 오가는 비행체는 다 남조선의것이며 북측지역을 촬영한 사진이 나오면 그 비행체 역시 남조선의것이라는 귀결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건해명치고는 단순함을 벗어나 유치하고 천박하기 그지없다.

하긴 얼마나 공색했으면 무인기의 비행방향과 말 못하는 사진을 《증인》으로까지 내세웠는가 하는것이다.

아마도 사진들이 《일》을 열게 된다면 《북소행》을 떠드는 모략자들의 뺨을 정신이 번쩍 들게 후려갈것을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이러한 항공거리를 놓고 《북소행》으로 단정짓기에는 제스스로도 부끄럽고 개념없었던지 감상조건이나 왕복거리까지 더 고려해보았다고 덧붙였다.

항공거리가 짧으면 짙어서 《북소행》이고 항공거리가 길면 길어서 《북소행》으로 된다는 격이다.

그렇다면 항공거리가 짧은 이 세상의 모든 비행체는 그것대로, 항공거리가 긴 비행체는 또 그것대로 다 《북비행체》란 말인가.

제 중심을 달성하지나 이런 생각지도 꺼리낌없이 부러대는것이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남조선내부에서 단타더로 반박해나섰다.

총체적무게가 12kg인 무인기가 항공거리 300km에 필요한 연료를 5kg이나 장차하면 뜨지조차 못한다는것이다.

그야말로 웃지도 못하지 못할 희극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이러한 항공거리를 놓고 《북소행》으로 단정짓기에는 제스스로도 부끄럽고 개념없었던지 감상조건이나 왕복거리까지 더 고려해보았다고 덧붙였다.

항공거리가 짧으면 짙어서 《북소행》이고 항공거리가 길면 길어서 《북소행》으로 된다는 격이다.

그렇다면 항공거리가 짧은 이 세상의 모든 비행체는 그것대로, 항공거리가 긴 비행체는 또 그것대로 다 《북비행체》란 말인가.

제 중심을 달성하지나 이런 생각지도 꺼리낌없이 부러대는것이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남조선내부에서 단타더로 반박해나섰다.

총체적무게가 12kg인 무인기가 항공거리 300km에 필요한 연료를 5kg이나 장차하면 뜨지조차 못한다는것이다.

그야말로 웃지도 못하지 못할 희극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아무래도 《북소행》을 안받침하는 근거자료들이 미미한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2010년 3월 《천안》호가 《북이외공격》에 의해 침몰될 때도 전과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무인기로 《천안》호의 항로를 추적하고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내부에서 단타더로 반박해나섰다.

총체적무게가 12kg인 무인기가 항공거리 300km에 필요한 연료를 5kg이나 장차하면 뜨지조차 못한다는것이다.

그야말로 웃지도 못하지 못할 희극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아무래도 《북소행》을 안받침하는 근거자료들이 미미한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2010년 3월 《천안》호가 《북이외공격》에 의해 침몰될 때도 전과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무인기로 《천안》호의 항로를 추적하고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내부에서 단타더로 반박해나섰다.

총체적무게가 12kg인 무인기가 항공거리 300km에 필요한 연료를 5kg이나 장차하면 뜨지조차 못한다는것이다.

그야말로 웃지도 못하지 못할 희극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아무래도 《북소행》을 안받침하는 근거자료들이 미미한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2010년 3월 《천안》호가 《북이외공격》에 의해 침몰될 때도 전과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무인기로 《천안》호의 항로를 추적하고 그 위치를 정확히 표시내부에서 단타더로 반박해나섰다.

총체적무게가 12kg인 무인기가 항공거리 300km에 필요한 연료를 5kg이나 장차하면 뜨지조차 못한다는것이다.

그야말로 웃지도 못하지 못할 희극이 아닐수 없다.

남조선당국의 《중간조사결과》를 비롯하여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은 발표되자마자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비상식적인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북소행》으로 《확실시》된다고 지적한 사실자료들만 보아도 정체불명의 무인기사건은 《천안》호사건때를 신통히도 편상해 하고있다.

말 못하는 《증인》으로 나선 사진들

남조선당국은 무인기들에서 나온 촬영사진들이 《북소행》을 입증하는 가장 위력한 증거라고 하였다.

파주에서 수거한 무인기의 경우 북쪽에서 서울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청와대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도북부의 주요시설들을 촬영한 사진 193장이 나왔다고 하였다.

백령도에 수거한 무인기도 소정에서 대동강을 거쳐 백령도로 날아가는 도중 남측의 군사시설물들을 100여장이나 촬영하였다고 하면서 이것만 보아도 북에서 무인기를 보냈다는것을 강하게 뒤받침해준다고 하였다.

남측의 논리대로 한다면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오가는 비행체는 다 《북의것》으로 되며 그것이 어떤 물체이든 남측지역을 촬영한 사진들이 나오면 모두 《북의것》으로 된다는것이다.

그렇다면 군사분계선 북측지역에서 남과 북으로 오가는 비행체는 다 남조선의것이며 북측지역을 촬영한 사진이 나오면 그 비행체 역시 남조선의것이라는 귀결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건해명치고는 단순함을 벗어나 유치하고 천박하기 그지없다.

하긴 얼마나 공색했으면 무인기의 비행방향과 말 못하는 사진을 《증인》으로까지 내세웠는가 하는것이다.

아마도 사진들이 《일》을 열게 된다면 《북소행》을 떠드는 모략자들의 뺨을 정신이 번쩍 들게 후려갈것을겠것이다.

남조선당국의 《중간조사결과》를 비롯하여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은 발표되자마자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비상식적인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북소행》으로 《확실시》된다고 지적한 사실자료들만 보아도 정체불명의 무인기사건은 《천안》호사건때를 신통히도 편상해 하고있다.

말 못하는 《증인》으로 나선 사진들

남조선당국은 무인기들에서 나온 촬영사진들이 《북소행》을 입증하는 가장 위력한 증거라고 하였다.

파주에서 수거한 무인기의 경우 북쪽에서 서울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청와대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도북부의 주요시설들을 촬영한 사진 193장이 나왔다고 하였다.

백령도에 수거한 무인기도 소정에서 대동강을 거쳐 백령도로 날아가는 도중 남측의 군사시설물들을 100여장이나 촬영하였다고 하면서 이것만 보아도 북에서 무인기를 보냈다는것을 강하게 뒤받침해준다고 하였다.

남측의 논리대로 한다면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오가는 비행체는 다 《북의것》으로 되며 그것이 어떤 물체이든 남측지역을 촬영한 사진들이 나오면 모두 《북의것》으로 된다는것이다.

그렇다면 군사분계선 북측지역에서 남과 북으로 오가는 비행체는 다 남조선의것이며 북측지역을 촬영한 사진이 나오면 그 비행체 역시 남조선의것이라는 귀결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건해명치고는 단순함을 벗어나 유치하고 천박하기 그지없다.

하긴 얼마나 공색했으면 무인기의 비행방향과 말 못하는 사진을 《증인》으로까지 내세웠는가 하는것이다.

아마도 사진들이 《일》을 열게 된다면 《북소행》을 떠드는 모략자들의 뺨을 정신이 번쩍 들게 후려갈것을겠것이다.

남조선당국의 《중간조사결과》를 비롯하여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은 발표되자마자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비상식적인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북소행》으로 《확실시》된다고 지적한 사실자료들만 보아도 정체불명의 무인기사건은 《천안》호사건때를 신통히도 편상해 하고있다.

말 못하는 《증인》으로 나선 사진들

남조선당국은 무인기들에서 나온 촬영사진들이 《북소행》을 입증하는 가장 위력한 증거라고 하였다.

파주에서 수거한 무인기의 경우 북쪽에서 서울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청와대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도북부의 주요시설들을 촬영한 사진 193장이 나왔다고 하였다.

백령도에 수거한 무인기도 소정에서 대동강을 거쳐 백령도로 날아가는 도중 남측의 군사시설물들을 100여장이나 촬영하였다고 하면서 이것만 보아도 북에서 무인기를 보냈다는것을 강하게 뒤받침해준다고 하였다.

남측의 논리대로 한다면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오가는 비행체는 다 《북의것》으로 되며 그것이 어떤 물체이든 남측지역을 촬영한 사진들이 나오면 모두 《북의것》으로 된다는것이다.

그렇다면 군사분계선 북측지역에서 남과 북으로 오가는 비행체는 다 남조선의것이며 북측지역을 촬영한 사진이 나오면 그 비행체 역시 남조선의것이라는 귀결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건해명치고는 단순함을 벗어나 유치하고 천박하기 그지없다.

하긴 얼마나 공색했으면 무인기의 비행방향과 말 못하는 사진을 《증인》으로까지 내세웠는가 하는것이다.

아마도 사진들이 《일》을 열게 된다면 《북소행》을 떠드는 모략자들의 뺨을 정신이 번쩍 들게 후려갈것을겠것이다.

남조선당국의 《중간조사결과》를 비롯하여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은 발표되자마자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비상식적인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북소행》으로 《확실시》된다고 지적한 사실자료들만 보아도 정체불명의 무인기사건은 《천안》호사건때를 신통히도 편상해 하고있다.

말 못하는 《증인》으로 나선 사진들

남조선당국은 무인기들에서 나온 촬영사진들이 《북소행》을 입증하는 가장 위력한 증거라고 하였다.

파주에서 수거한 무인기의 경우 북쪽에서 서울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청와대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도북부의 주요시설들을 촬영한 사진 193장이 나왔다고 하였다.

백령도에 수거한 무인기도 소정에서 대동강을 거쳐 백령도로 날아가는 도중 남측의 군사시설물들을 100여장이나 촬영하였다고 하면서 이것만 보아도 북에서 무인기를 보냈다는것을 강하게 뒤받침해준다고 하였다.

남측의 논리대로 한다면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오가는 비행체는 다 《북의것》으로 되며 그것이 어떤 물체이든 남측지역을 촬영한 사진들이 나오면 모두 《북의것》으로 된다는것이다.

그렇다면 군사분계선 북측지역에서 남과 북으로 오가는 비행체는 다 남조선의것이며 북측지역을 촬영한 사진이 나오면 그 비행체 역시 남조선의것이라는 귀결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건해명치고는 단순함을 벗어나 유치하고 천박하기 그지없다.

하긴 얼마나 공색했으면 무인기의 비행방향과 말 못하는 사진을 《증인》으로까지 내세웠는가 하는것이다.

아마도 사진들이 《일》을 열게 된다면 《북소행》을 떠드는 모략자들의 뺨을 정신이 번쩍 들게 후려갈것을겠것이다.

남조선당국의 《중간조사결과》를 비롯하여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은 발표되자마자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비상식적인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북소행》으로 《확실시》된다고 지적한 사실자료들만 보아도 정체불명의 무인기사건은 《천안》호사건때를 신통히도 편상해 하고있다.

말 못하는 《증인》으로 나선 사진들

남조선당국은 무인기들에서 나온 촬영사진들이 《북소행》을 입증하는 가장 위력한 증거라고 하였다.

파주에서 수거한 무인기의 경우 북쪽에서 서울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청와대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도북부의 주요시설들을 촬영한 사진 193장이 나왔다고 하였다.

백령도에 수거한 무인기도 소정에서 대동강을 거쳐 백령도로 날아가는 도중 남측의 군사시설물들을 100여장이나 촬영하였다고 하면서 이것만 보아도 북에서 무인기를 보냈다는것을 강하게 뒤받침해준다고 하였다.

남측의 논리대로 한다면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오가는 비행체는 다 《북의것》으로 되며 그것이 어떤 물체이든 남측지역을 촬영한 사진들이 나오면 모두 《북의것》으로 된다는것이다.

그렇다면 군사분계선 북측지역에서 남과 북으로 오가는 비행체는 다 남조선의것이며 북측지역을 촬영한 사진이 나오면 그 비행체 역시 남조선의것이라는 귀결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건해명치고는 단순함을 벗어나 유치하고 천박하기 그지없다.

하긴 얼마나 공색했으면 무인기의 비행방향과 말 못하는 사진을 《증인》으로까지 내세웠는가 하는것이다.

아마도 사진들이 《일》을 열게 된다면 《북소행》을 떠드는 모략자들의 뺨을 정신이 번쩍 들게 후려갈것을겠것이다.

남조선당국의 《중간조사결과》를 비롯하여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은 발표되자마자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비상식적인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북소행》으로 《확실시》된다고 지적한 사실자료들만 보아도 정체불명의 무인기사건은 《천안》호사건때를 신통히도 편상해 하고있다.

말 못하는 《증인》으로 나선 사진들

남조선당국은 무인기들에서 나온 촬영사진들이 《북소행》을 입증하는 가장 위력한 증거라고 하였다.

파주에서 수거한 무인기의 경우 북쪽에서 서울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청와대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도북부의 주요시설들을 촬영한 사진 193장이 나왔다고 하였다.

백령도에 수거한 무인기도 소정에서 대동강을 거쳐 백령도로 날아가는 도중 남측의 군사시설물들을 100여장이나 촬영하였다고 하면서 이것만 보아도 북에서 무인기를 보냈다는것을 강하게 뒤받침해준다고 하였다.

남측의 논리대로 한다면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오가는 비행체는 다 《북의것》으로 되며 그것이 어떤 물체이든 남측지역을 촬영한 사진들이 나오면 모두 《북의것》으로 된다는것이다.

그렇다면 군사분계선 북측지역에서 남과 북으로 오가는 비행체는 다 남조선의것이며 북측지역을 촬영한 사진이 나오면 그 비행체 역시 남조선의것이라는 귀결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건해명치고는 단순함을 벗어나 유치하고 천박하기 그지없다.

하긴 얼마나 공색했으면 무인기의 비행방향과 말 못하는 사진을 《증인》으로까지 내세웠는가 하는것이다.

아마도 사진들이 《일》을 열게 된다면 《북소행》을 떠드는 모략자들의 뺨을 정신이 번쩍 들게 후려갈것을겠것이다.

남조선당국의 《중간조사결과》를 비롯하여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은 발표되자마자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비상식적인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북소행》으로 《확실시》된다고 지적한 사실자료들만 보아도 정체불명의 무인기사건은 《천안》호사건때를 신통히도 편상해 하고있다.

말 못하는 《증인》으로 나선 사진들

남조선당국은 무인기들에서 나온 촬영사진들이 《북소행》을 입증하는 가장 위력한 증거라고 하였다.

파주에서 수거한 무인기의 경우 북쪽에서 서울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청와대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도북부의 주요시설들을 촬영한 사진 193장이 나왔다고 하였다.

백령도에 수거한 무인기도 소정에서 대동강을 거쳐 백령도로 날아가는 도중 남측의 군사시설물들을 100여장이나 촬영하였다고 하면서 이것만 보아도 북에서 무인기를 보냈다는것을 강하게 뒤받침해준다고 하였다.

남측의 논리대로 한다면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오가는 비행체는 다 《북의것》으로 되며 그것이 어떤 물체이든 남측지역을 촬영한 사진들이 나오면 모두 《북의것》으로 된다는것이다.

그렇다면 군사분계선 북측지역에서 남과 북으로 오가는 비행체는 다 남조선의것이며 북측지역을 촬영한 사진이 나오면 그 비행체 역시 남조선의것이라는 귀결이 주어지지 않는다.

사건해명치고는 단순함을 벗어나 유치하고 천박하기 그지없다.

하긴 얼마나 공색했으면 무인기의 비행방향과 말 못하는 사진을 《증인》으로까지 내세웠는가 하는것이다.

아마도 사진들이 《일》을 열게 된다면 《북소행》을 떠드는 모략자들의 뺨을 정신이 번쩍 들게 후려갈것을겠것이다.

남조선당국의 《중간조사결과》를 비롯하여 무인기사건의 《북소행》설은 발표되자마자 앞뒤가 맞지 않는 비과학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비상식적인것으로 하여 내외의 커다란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북소행》으로 《확실시》된다고 지적한 사실자료들만 보아도 정체불명의 무인기사건은 《천안》호사건때를 신통히도 편상해 하고있다.

말 못하는 《증인》으로 나선 사진들

남조선당국은 무인기들에서 나온 촬영사진들이 《북소행》을 입증하는 가장 위력한 증거라고 하였다.

파주에서 수거한 무인기의 경우 북쪽에서 서울을 향해 남쪽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북쪽으로 올라갔는데 청와대를 포함한 서울과 경기도북부의 주요시설들을 촬영한 사진 193장이 나왔다고 하였다.

백령도에 수거한 무인기도 소정에서 대동강을 거쳐 백령도로 날아가는 도중 남측의 군사시설물들을 100여장이나 촬영하였다고 하면서 이것만 보아도 북에서 무인기를 보냈다는것을 강하게 뒤받침해준다고 하였다.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상을 우러러 만발한 불멸의 꽃

제 16 차 김일성 화축전장에서

수령결사옹위의 신념 맥박치는 태양의 꽃바다

전시대에 비끼는 불라는 마음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인류사주위업 실현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아버지의 업적을 이룩하신 아버지를 기리며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절절한 그리움과 뜨거운 지성이 반영되어 제 16차 김일성화축전이 성대히 진행되고있다.

지난 시기의 축전장에서 드러났지만 이번에도 인민군장병들이 심장으로 피워올린 김일성화 축전만발한 전시대들을 찾는 참관자들의 물결은 끝을 모르고있다. 천여상이나 되는 태양의 꽃들로 활활하게 단장된 인민무력부전시대를 돌아보는 참관자들은 한결같이 승연한 감정을 금치 못한다.

한것은 전시대에 세차게 끓어오르는 결세의 위인에 대한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절절한 그리움과 함께 수령결사옹위의 신념과 지, 열정이 참관자들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어주기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군대에서는 김일성화 재배온실을 잘 꾸리고 온갖 정성을 다하여 태양의 꽃을 잘 키우고있으며 김일성화 축전에 성의있게 참가하고있습디다.》

보면 볼수록 감동을 금할수 없다. 수많은 태양의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전시대의 좌우에 위대한 수령님의 인민적품성과 한세대대 두 계국주의를 타산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보여주는 직관들과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넋을 받들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따라 주체위업,

인민무력부전시대

신군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갈 천만군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맹세가 어린 당기와 최고사령관의 훌륭한 형상... 시원스럽게 뚫어나간 꽃대들마다 아름다운 태양의 꽃들이 활활 피는 모습속에서 절세위인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날라달을 이어온 인민군장병들의 마음이 력력히 어려온다.

인민무력부의 김일성화 김일성화온실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심장속에 태양으로 영생하고 계시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을 안고 이번 축전장에 전시할 태양의 꽃들을 더 활짝 피우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다하였다. 갑자기 온실조건이 불리해진 속에서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꽃을 보다 과학기술적으로 피우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들만이 아닌 인민군장병들 모두가 이번 태양의 꽃축전장을 더욱 훌륭히 장식할 일념으로 김일성화를 아름답게 피우는데 모든 사색과 심혈을 바치였다.

그러나만 초소들에서도 꽃재배에 좋은 부식토를 성의있게 마련하여 보내주었다. 태양의 꽃을 가꾸어던 나날과 더불어 인민군장병들의 수령결사옹위의 신념은 더

욱 굳건해지고 누구나 백발백중의 명사수, 펠렐 나는 싸움꾼으로 성장하였다.

정령 김일성화를 키우는 과정은 그대로 인민군장병들의 가슴속에 절세의 위인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총대로 결사옹위해갈 불변의 신념이 더욱 역세게 자리잡는 나날이었다.

레네없이 아름답게 피어오른 김일성화를 이번 축전장에 전시한 기쁨을 안고 인민무력부의 일꾼인 윤봉식동무는 말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결사옹위해갈 우리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드높은 신념과 의지에 부러워 내린 태양의 꽃이어서 이렇듯 훌륭한 경축의 꽃바다를 이루고있을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바로 수령결사옹위 정신으로 맥박치는 이런 불같은 신념들에 반들려 피어난 태양의 꽃들이 훌륭히 형성된 인민무력부전시대여서 볼수록 승연하게 안겨오는것 아니랴.

불멸의 혁명무력을 창건하시

고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오신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높이 칭송하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령도 따라 주체위업, 신군혁명위업을 앞장서 받들어나가는 인민군장병들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비껴있는 인민무력부전시대,

이곳 전시대를 돌아보면서 참관자들은 자연의 꽃은 철에 따라 피고지지만 천만군민의 마음속에 뿌리내린 태양의 꽃은 계절을 모르며 혁명의 총대와 더불어 영원히 만발할것이라는것을 가슴뜨겁게 절감하고있다.

본사기자 김옥별

불라는 충정속에 흘러온 날과 달

축전장에 달려온 아버지와 딸

류달리 품게 된 4살의 김일성화를 정성껏 가꾸어가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만경대구역 당상1동에서 사는 김정동무와 그의 딸 강혜현학생이었다.

알고보니 그들의 가슴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정의 세계를 심어준것은 집안의 로세대 혁명가들인 항일혁명투사들이었다.

태양만을 따르는 해바라기가 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던 항일혁명투사들,

항일의 나날에 혁명의 1세대들이 높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위 정신, 충정의 한마음을 대를 이어 물려주는 숭고한 그 정신세계에 머리가 숙여졌다.

대밭에서 대가 나란다고 강혜현학생은 처음에는 부모들과 함께, 그다음에는 김일성화재배경

험이 많은 친척들의 방조도 받으며 태양의 꽃을 정성껏 피워갔다. 그 나날 해현이는 몰라보게 성장하였다. 글 한자씩 쓸 때에도, 한가지 좋은 일을 찾아할 때에도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자기를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 나날 해현이가 썼다는 시구절은 얼마나 깊은 감동을 자아내는지...

태양의 꽃 축전장가자들속에는 붉은레타이를 맨 락구역 충정초급중학교의 정충혁학생도 있었다. 8년전부터 태양의 꽃축전에 참가하는 충혁이의 집은 한아빠 트러블로부터 《꽃집》이라고 불리운다. 모범소년단원인 그가 바로 이 꽃집의 《원예사》이다.

꽃집의 나 어린 《원예사》

유치원시절 충혁이는 중앙식물원에 활짝 핀 태양의 꽃들을 보며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다. 《아버지, 우리도 저 꽃을 키울수 없나요?》 충혁이의 그 말에 부모들은 키보다 먼저 마음이 자라는 아들의 성장에 가슴이 뭉클것

어울렸다. 그때부터 충혁이는 태양의 꽃을 키우기 시작하였다. 아버지,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먼길을 걸으며 질 좋은 부식토를 구해오기는 그 몇번, 아침 첫 일파를 태양의 꽃을 가꾸는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꽃재배에 필요한 참고서를 보물이 일도록 보기는 또 그 몇번...

그 모든 사연과 자랑담이 울린 편지를 경애하는 원수님들께 보내주시었다.

나 어린 충혁이는 마음다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으로 화성당에 태양의 꽃과 더불어 충정의 한마음 더덕세게 키워가겠다고.

가슴속에 불라는 그 맹세를 안고 또다시 아름답게 피워 축전장에 전시한 태양의 꽃은 참관자들을 더욱 감동시키고있다.

본사기자

태양절경축 전국녀맹 예술소 조종합공연 진행

태양절경축 전국녀맹 예술소 조종합공연 《태양절에 부르는 녀맹원들의 신념의 노래》가 14일 녀맹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리일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정순 녀맹중앙위원회 부장, 김진하 평양시당위원회 부서, 녀맹원들과 평양 시내 녀맹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무대에는 합창 《태양절 범명절》, 《수령님 한복속에 우리는 사내》, 《인민의 환희》, 독창과 방창 《붉은 철령》, 대회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탄생 102돐에 즈음하여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이 14일 원산항에서 진행되었다.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원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모임에 앞서 참가자들은 원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다.

김일성김정일기념리사회 공동리사장 도착

태양절에 하였다. 즈음하여 비행장에서 김일성김정일기념리사회 공동리사 김일성김정일기념리사회 리사장 장요니 혼이 14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프랑스 AFP 통신사 대표단 도착

필리프 마조네 부사장은 통신사대표단이 14일 비행단장으로 하는 프랑스 AFP 기로 평양에 도착하였다.

뿌리와 같은 사람들

봉화지도국 전시대

김일성화김정일화위업회의원에 전문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도록 해준 사람들도, 온실조건이 불리한세라 헌신하는 사람들도 바로 그들입니다.

한순회동무는 이렇게 말하며 태양의 꽃을 키우는 나날에 겪었던 장황한 일들을 비롯하여 일꾼들의 이름을 스스럼없이 꼽아나갔다.

태양의 꽃축전준비에 정열을 바친 일꾼들에게 대한 이야기는 들을수록 감동되었다.

김일성화재배에서는 온도보장이 기본이라고 하면서 여러차례의 협의회를 열어가며 보아내려준 위대한 대박을 토한 이야기, 갖가지 음식들을 안고 가야와 온실성원들을 고루해준 이야기, 태양의 꽃을 더 잘 피우려면 보다 좋은 재배환경을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전람회

여러 나라에서 개막

태양절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당과 국가의 최고수위에 높이 추대되신 2돐에 즈음하여 로씨야 칼루가주 오브닌스크시, 베루 리아시, 벨라리아 베르니키에서 2일부터 7일까지의 기간에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및 미술전람회가 개막되었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다. 또한 백두산철수위업의 불후의 고전적작품들을 비롯한 도서들, 선군조선의 참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전람회개막식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 칼루가주 오브닌스크시 부시장은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조선의 힘은 막강하다. 조선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이며 핵보유국이다. 최근 조선의 경제도 눈에 띄게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김정일동지께서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훌륭히 계승해나간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로씨야 칼루가주 오브닌스크시 력사미술박물관 관장은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다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인민사랑의 정치는 조선승승장군하게 하고 세계를 경탄시키고있다고 강조하였다. 베루 리아시 쉐피야고 데 두

외국 손님들 제16차 김일성화축전장 참관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여러 나라 외교대표들과 무관단, 경제 및 무역차사단, 대사관성원들,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대표단, 적십자국제위원회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손님들이 14일 제16차 김일성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우리 인민들과 진보적인민들의 다함없는 경모의 정이 뜨겁게 흐르는 이곳을 찾은 손님들은 인민의 영원한 태양과 더불어 세세년년 위인정충의 명화로 더욱 활짝 피어나고있는 김일성화들로 활황경을 이룬 축전장을

여러 나라의 주체사상연구단체 대표들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타이주체사상연구 조직대표단, 안나 세베 나 바르톨루치를 단장으로 하는 이탈리아 주체사상연구단체 대표단, 대우렌스 엘튼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소조 위원장, 이리나 말레코

원산항에서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태양절경축 전국녀맹 예술소 조종합공연 진행

원산항에서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김일성김정일기념리사회 공동리사장 도착

프랑스 AFP 통신사 대표단 도착

원산항에서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원산항에서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원산항에서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김일성김정일기념리사회 공동리사장 도착

프랑스 AFP 통신사 대표단 도착

원산항에서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원산항에서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원산항에서 외국선박선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김일성김정일기념리사회 공동리사장 도착

프랑스 AFP 통신사 대표단 도착